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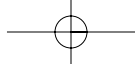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건강, 의료, 재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1:3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은 죽음도 노화도 질병도 없는 세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첫 사람에게 당신의 명령을 주시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죽게 될 것에 대해 처음 말씀하셨다(창 2:17). 그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자연은 그를 거스르며(창 3:18), 그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창 3:19),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창 3:24). 예수께서는 치유를 행하시면서 죄사함을 언급하시어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는 것을 시사하셨다(막 2:3-12). 지금 세상에 질병과 장애와 노화와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하여 원래 세상에서의 조화와 건강으로부터 떨어진 현재의 세상을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관심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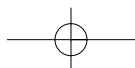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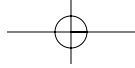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실패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던 선지자들의 비전에, 그리고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든 질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멀리 해주시겠다고 하셨다(신 7:15).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지킬 법에도 그들의 보건과 관련된 규례들을 주셨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당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건을 위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식품위생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섭취가 금지되었던 부정한 동물들은 주변 부족들의 부정한 제의 행태와 연관이 있거나 당시에 경험적으로 알려진 질병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 후 산모의 격리는 산모와 영아 사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관념을 반영한 보호조치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문둥병이라고 기록된 나균감염 혹은 진균감염 등의 전염성 피부질환은 천막 공동체의 공중보건을 위해 격리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패역하였을 때, 언약의 말씀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함께 질병이 닥칠 것을 경고하였었고(신 28:59-61), 실제로 그들은 그 경고대로 끊이지 않는 질병을 목도해야 했다(렘 6:7). 그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바라보던 선지자들은 마침내 치유가 신속히 임하고(사 58:8) 건강이 회복될 것임을(말 4:2) 내다보며, 여호와와의 종이 우리의 질병을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을 예언했다(사 53:4,5).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이 예언들은 현실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역 초기에 갈릴리 회당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뿐 아니라 육체적 문제를 가진 이에게 회복을 전파하러 오셨음을 선언하셨고(눅 4:18,19),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어 문의하였을 때도 질병을 가진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표적으로 제시하셨다(눅 7:18-23, 마 11:2-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





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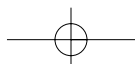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주님은 짧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하시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14:12)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요 20:21). 그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사역이 계속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행 5: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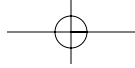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성경적 관점에서 건강을 타락 이전의 상태,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바대로의 상태로 이해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의 핵심인 죄사함은 질병 치유와 동시에 나타났던 의미를 이해한다면, 건강을 말할 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이분법은 정당성을 잃는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은 존재로서, 죄와 타락, 구원과 회복은 전인에 미치는 것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녕과 화평과 완전함과 건강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살롬이다.

의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치료자이심을 선언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업무 중 하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진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레 13).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과정에 제사장들을 통합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했다. 제사장의 그러한 권위는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눅 5:14). 또한 예수님 자신도 참 대제사장이므로써 치유를 행하셨고,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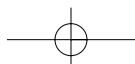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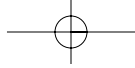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들에게 치유 사역을 위임하셨으며, 교회도 그 직무를 이어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마 28:18)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이 명하면 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권위를 부여하셨다(눅 9:1). 교회의 장로들이 환자를 방문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약 5:14).

교회는 항상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왔다. 치료 행위가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근대 과학의 발흥과 더불어 의학도 자연스럽게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는데,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지식이 과학화, 전문화 되어가면서 치료는 성직자보다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에 의학과 병원의 발전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 사회였고, 지난 두 세기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는 거의 항상 의료 사역이 동반되었고 병원이 생겨났다. 이는 의료 행위의 동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공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대로 말씀을 전파하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역의 모델을 당연히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의 발전된 의학 수준은 1세기 전 척박한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찾아왔던 의료선교사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어떤 면에서 병원은 기독교 문화의 산물이라고 해도 그리 근거 없는 말은 아닐 터이다.

병원 사역은 그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과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의료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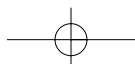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통합적인 존재인 것처럼, 치료의 방법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며 성경적이지도 않다. 예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병을 고치기도 하셨지만 안수하거나(눅 1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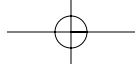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흙을 바르는 등의(요 9:6) 치료적 행위를 하기도 하셨고, 신약의 교회에서도 치료적 행위는 당연시 되었다(딤후 5:23, 약 5:14). 사람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자연치유나 의술을 통한 치료 모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사실 사람은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하여 어두워진 이성을 가진 사람은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한다.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은 사람이 그 메카니즘을 이해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연적인 치료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같은 맥락에서 의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공휼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의학은 하나님의 공휼에 힘입어 발전되어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교만해졌고, 교회와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물질주의적, 생의학적 모델을 이상으로 삼았다.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뉴우튼의 기계론에 기반을 둔 생의학적 모델은 인체를 각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는 기계로 이해하며, 질병은 세포 및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는 생물학적 매카니즘의 기능 장애이고 의사의 역할은 이 특수 매카니즘의 기능 장애를 교정하기 위하여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다. 의학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관은 인간을 자연과 조화하기 보다는 대립하는 존재로 보는 왜곡된 이해를 초래했고 의학은 인간 중심적이기 보다는 질병 중심으로 되었다. 그 결과 현대의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롬을 전하기보다는 질병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멀어질 때 의료의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현대의학은 성경으로부터 인간관을 배워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의학을 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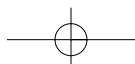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재활: 약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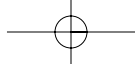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9)

의학의 발전을 인하여 과거에는 사망에 이르렀을 질병이나 사고 이후에도 생존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20세기의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부상자들이 장애를 가진 채 생존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현대의학은 생명을 유지하는 의학에서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의학에 이르렀는데, 재활의학은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비교적 새롭게 나타난 의학의 분야이다. 재활의학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존중과 관심을 환기하는데 이바지해왔고 21세기의 고령사회에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재활의료는 장애인과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살롬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살롬이다. 살롬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상태다. 장애인은 결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살롬이 임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그 해답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이중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 하나님 나라 성취의 이중성, 즉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살롬의 성취도 제한적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건강을 주시지만 질병과 장애와 노화와 죽음이 없는 완전한 건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건강은 '질병 속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 자체는 실재론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정의된 존재(entity)라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개념의 변화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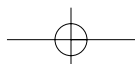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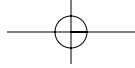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라 각 질병의 정의도 변화하며 새롭게 생기는 질병이 있는가하면 사라지는 질병도 있다. 이 세상에서의 질병과 건강은 연장선상에 있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다. 질병이 없는 사람도 완전한 건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으며 질병이 있다고 진단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의학적 정의에 의해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이중성 사이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건강이란 '신체적 상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무런 질병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장애가 있으면서도 건강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로, 전신화상을 입고도 자신을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는 이지선씨와 사지가 없는 선천성 기형을 안고 태어나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다니는 닉 부이치치를 들 수 있다. 예수님도 신체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각기능이 정상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셨다(요 9:41).

건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지 않으면 치유에 대한 오해를 가지기 쉽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선언대로(사 53:5)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그러나 그 치유가 반드시 의학적 기준에 따른 질병의 소실일 이유는 없다. 이 점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치유를 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불신하며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시험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질병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신다. 지금 현재의 몸은 부활의 몸이 아니며, 유치가 빠지고 나면 영구치가 돌아나듯이 지금의 불완전한 몸은 장차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파하며 이적을 행했던 초대교회의 일군들도 질병을 겪었다. 에바브로디도는 질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공화로 회복되었고(빌 2:27), 바울 역시 그를 괴롭히는 장애로부터 결국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서 그를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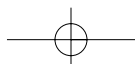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전하게 하시었다(고후 12:9). 재활의료는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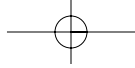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20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치료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 그 제자들도 치유 사역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계승하는 병원은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선포하는 병원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사야 65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에는 건강과 관련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곧 영아 사망이 사라질 것과 수명이 최소 100세까지는 연장될 것이라는 비전이다(사 65:20). 이 비전은 분명 부활의 세계에 관한 언급은 아닌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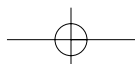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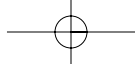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으로 보인다. 이 세상의 삶에서 건강한 상태로 천수를 누리는 것은 이사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도 바라는 바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사야에게 비전으로 보여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까닭일 터이다.

건강의 문제에 관한 한 이사야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의 성취는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 한층 가까워졌다. 현대의 선진국 사회의 건강지표는 놀랍게 개선되었다. 산모와 영유아 사망률은 현저하게 낮아졌고 평균수명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만 해도 영아 사망률은 1970년 1,000명당 45명에서 2006년 1,000명당 4.1명으로 크게 호전되었고, 평균 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2007년 79.4세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단지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건강한 상태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롬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의학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병원의 사명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장애인, 노인, 만성병자, 난치병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가진 질병과 장애와 노화의 문제를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살롬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료라는 도구로 환자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신다. 불완전하나마 이 세상에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재활의료 역시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된다. 병원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으로서의 의료를 행하려면 교회와 연합하여 사역해야 한다. 원래 의료 사역은 그 본질상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교회에서의 치유사역이 현대의료와 분리되어 시행될 때 많은 부작용이 있다. 치유를 갈망하는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현재에까지 알려진 최선의 치료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의학은 불완전하나마 지금까지 밝혀진 최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는 질병





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기회가 없다. 현재 병원과 교회는 최소한의 공조만을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교회는 병원의 전문성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웬지 병원의 치료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병원은 치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현대의학의 생의학적 모델에 의존하면서 교회가 환자들에게 주는 도움은 심리적인 측면 정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한 개인이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샬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환자와 장애인들을 대하여 전인 치유를 행하신 주님의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는 교회와 의료 사이에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병원과 치유사역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의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다. 샬롬의 선포는 지금도 의료와 건강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절실하다. 개발도상국에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의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선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의료는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나 특히 부족한 부분은 재활의료의 영역이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여러 이웃나라들로부터 의료 지원이 있지만, 그 이후에 생겨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료의 지원에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이 아직 불가능한 장애라 하더라도 재활医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회복을 전할 수 있다. 재활의학이 추구하는 삶의 질 회복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미암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의료 사역은 복음의 진보와 함께 계속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 사역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선행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구촌 공동체는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